



NAKASEC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NATIONAL KOREAN AMERICAN
SERVICE & EDUCATION CONSORTIUM

D.C. OFFICE D.C. 지부

1628 16TH STREET NW, SUITE 306
WASHINGTON D.C. 20009
T: 202.299.9540 | F: 202.299.9729
WWW.NAKASEC.ORG

LA OFFICE 엘에이 사무실

900 S. CRENSHAW BOULEVARD
LOS ANGELES, CA 90019

AFFILIATES 가입단체

chicago, il

KOREAN AMERICAN
RESOURCE & CULTURAL CENTER
한인교육문화마당집
6146 N LINCOLN AVENUE
CHICAGO, IL 60659
T: 773.588.9158 | F: 773.588.5159
WWW.CHICAGOKRCC.ORG

los angeles, ca

KOREAN RESOURCE CENTER
민족학교
900 S. CRENSHAW BOULEVARD
LOS ANGELES, CA 90019
T: 323.937.3718 | F: 323.937.3526
WWW.KRCLA.ORG

긴급보도의뢰서

2012년 6월 25일

연락:

하모나 Morna Ha, mha@nakasec.org, 202-299-9540

손식 Sik Son, sikson@chicagokrcc.org, 773-588-9158

윤대중 Dae Joong Yoon, djyoon@krcla.org, 323-937-3718

**아리조나주의 SB1070 에 대한 혼란스러운 연방대법원의 판결:
코리안 아메리칸과 아시안 태평양계 커뮤니티의 조직적 대응 움직임**

오늘 나온 5-3 판결로 연방대법원은 이민 문제를 넘어 연방정부의 권한을 위반한 아리조나주의 무자비한 반이민법 SB1070의 4 조 3 항의 실행을 중지시켰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분증명을 요구”하는 2(B) 조항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말았다. 이 조항은 지역 경찰관이 서류미비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신분증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의 결정으로 연방정부가 인간적인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시급하게 만들어야함이 확실해졌습니다. 아리조나, 알라바마, 조지아주에 있는 구상이 잘못된 법안들은 우리 커뮤니티를 공포에 떨게 하며 국가에 이익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라고 하모나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이하 미교협)의 사무국장은 이야기 합니다.

연방 대법원이 “신분증명 제시”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게 함으로써 차별적인 인종프로파일링의 실행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모나 사무국장은 계속 지적하였다. “미교협은 이민자 권익옹호단체와 민권 단체들과 연대하여 아리조나의 유색인종 커뮤니티뿐만아니라 다른주의 모든 커뮤니티의 권리가 보장되고 어렵게 쟁취한 민권이 지켜지도록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아시안 아메리칸은 SB1070 이 발효한 이후로 법안에 반대하는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날, 아시안 태평양 이민자 단체는 그 법안에 반대하는 아리조나의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아리조나까지 가기도 하였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는, SB1070 공청회 중에 우리는 연방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대중 행사를 하였습니다.” 라고 2010년 미교협과 파트너를 이뤄 남가주에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을 아리조나까지 이끌고 가 연대활동을 펼친바 있는 민족학교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이야기하였다. “오늘의 쟁점은 우리가 다시 싸워야 한다는 것 입니다.-이번 선거에서 우리 가족의 결함을 유지시킬수 있는 이민개혁법에 대한 지지를 끌어 올릴 것입니다.”

미교협과 그 가입단체들은 다른 아시안태평양계 이민자 단체들과 연대하여 중요한 이번 선거에서 아시안 태평양계 유권자들에게 이민자 가정과 유색인종의 권리를 지킬수 있도록 어떻게 그들의 공무원을 선출해야 하는지를 교육 할 것이다. 15개 주에 걸쳐 연합한 아시안 태평양 단체들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커뮤니티로서 이번 선거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의 손식 사무국장은 “우리는 최근에 발표된 서류 미비 학생들에 대한 구제안으로 경이로운 첫발을 내 디뎠고, 지금 모든 이민자 가정과 미국인을 위한 이민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계속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이민자들, 코리안 아메리칸, 아시안 태평양계, 그리고 모든 유색 인종이 이번 11월 선거에서 존중, 평등, 그리고 이민자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를 내 건 정책에 투표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미교협)은 1994년에 사회 변화를 위한 전국적인 운동 창출이라는 큰 목표의 일환으로 코리안 아메리칸의 전국적인 진보적 목소리를 결집시키고 완전한 시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미교협은 워싱턴 디씨와 로스앤젤레스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가입단체로는 로스앤젤레스 민족학교와 시카고의 시카고마당집이 있습니다